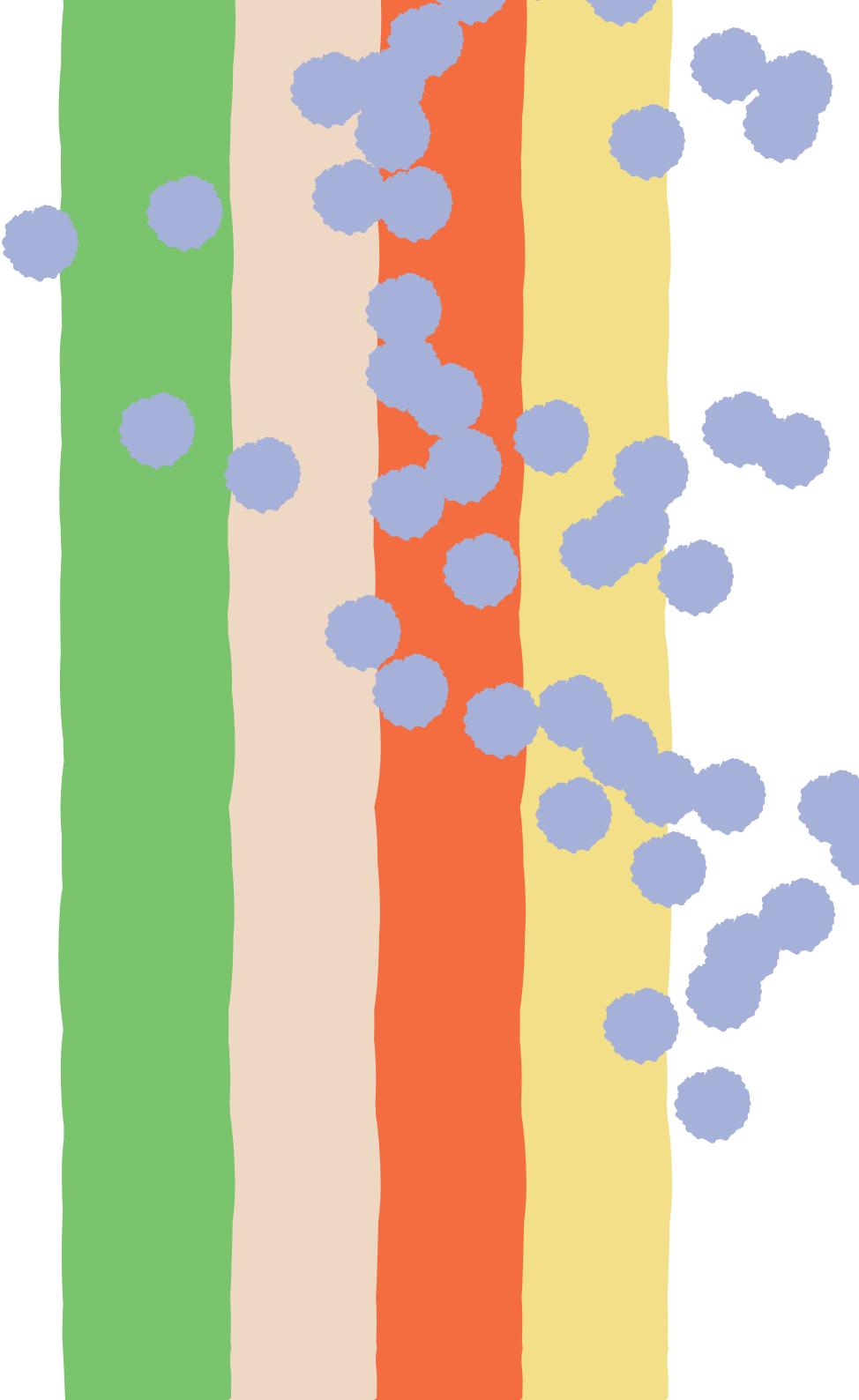


**1500 BORN
BY THE BUS
CARRIERS**





**(사)캔 파운데이션
2025 ARTBUS CANbus**

4p
5p

2025년 프로그램 소개
박희자
<엎치락뒤치락
종이로 마주하는 세상>
김소정
<수집된 시선,
나만의 풍경 만들기>

6-15p

16-25p
26p
27p
28-29p

30p

참여 후기
박희자 작가
김소정 작가
참여 작가 CV

프로그램 참여기관:
다운복지관 참여 후기

(사)캔 파운데이션

캔 파운데이션은 2008년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인 전시, 작가 레지던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 교류와 확산을 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미술계의 창작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에 노력한 결과,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았습니다.

캔은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시 공간 <MO BY CAN>과 <오래된 집>을 운영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는 <명륜동 작업실>을 운영하며, 매년 세 명의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아트버스 캔버스>는 2009년부터 이어져온 예술 창작 체험 활동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대미술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창작과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렇듯 캔 파운데이션은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전시, 작가 레지던시, 교육 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발생한 수익을 다시 예술 현장에 환원합니다. 예술이 또 다른 예술을 가능하게 하고, 창작이 다음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캔은 예술의 지속 가능성 to 실천하는 플랫폼입니다.

2025 ARTBUS CANbus

ARTBUS CANbus(이하 아트버스 캔버스)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캔 파운데이션의 대표 예술창작 프로그램입니다.

아트버스 캔버스를 통해 참여자들은 ‘작가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작가와 에듀케이터가 스쿨버스를 타고 도서·산간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팬데믹 이후에는 환아, 탈북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예술교육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재)청암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김소정, 박희자 작가와 함께 다운복지관 자립콘텐츠학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평범한 일상 속 아름다움 발견하기”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일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날만큼이나 대단했던 참여자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8주간의 수업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5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 참여자분들, 기관 관계자분들, 보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트버스 캔버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청암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자료집은 교육 현장의生生한 기록과 함께 참여자들이 발견한 반짝이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통해 아트버스 캔버스가 만들어낸 변화와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캔 파운데이션은 앞으로도 아트버스 캔버스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겠습니다.

CAN 캔파운데이션과 함께하는
예술후원 동행하기!



(사)캔 파운데이션

박희자

박희자 작가는 사진을 통해 공간, 사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버려진 장소와 물건들을 모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움직임과 시간이 담긴 순간들을 포착해냅니다. 그 결과 사진은 단순한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예술적인 표현 도구로 확장됩니다.

엎치락뒤치락 종이로 마주하는 세상

“종이에 세상을 담아 쌓고,
뒤엎기. 그리고 그 깊이를
이해하기”

참여들에게 다운복지관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찾아오던, 어쩌면 집보다 더 익숙한 공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쇄된 사진과 잡지, 테이프를 활용해 익숙한 복지관 공간을 새롭게 관찰하고 표현해 봅니다. 익숙함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1회차 2025.5.29.

<나를 여는 카드>

2회차 2025.6.5.

<천천히, 따뜻하게 바라보기>

3회차 2025.6.12.

<움직이는 풍경과 나>

4회차 2025.6.19.

<선으로 연결된 풍경-
테이프 드로잉>



유병인

위태형

전현경

남재영

김승주

김성민

천서연

김민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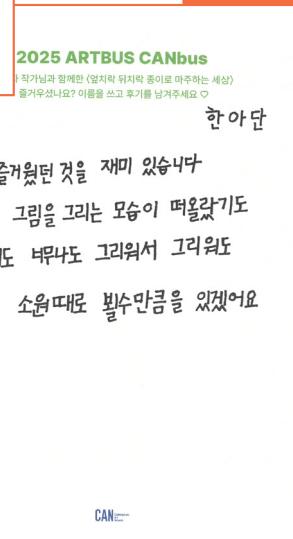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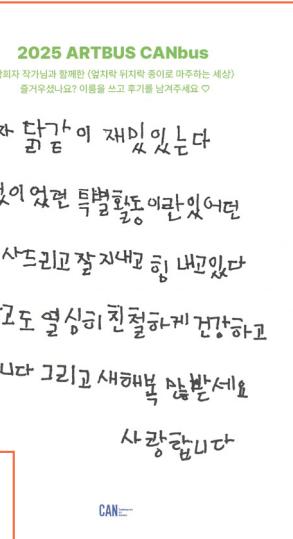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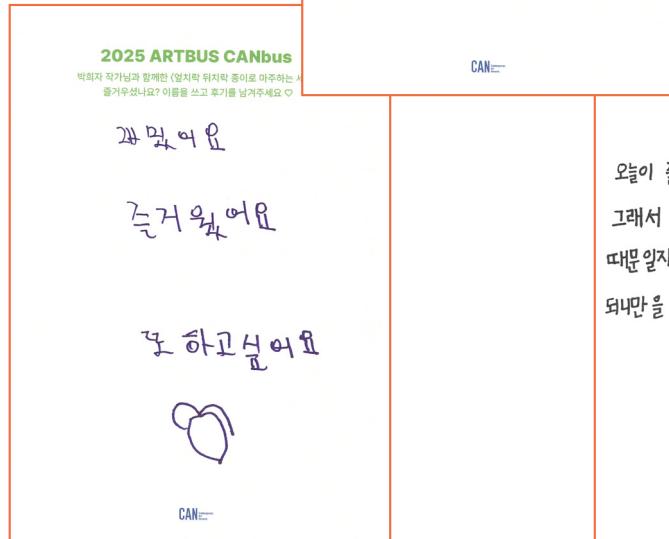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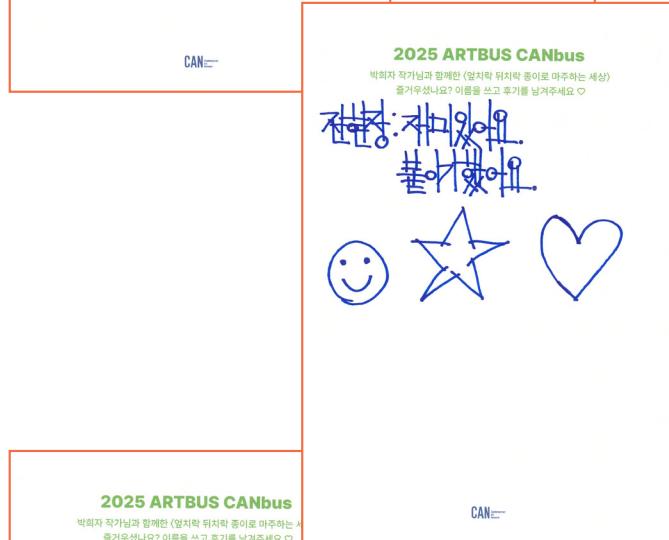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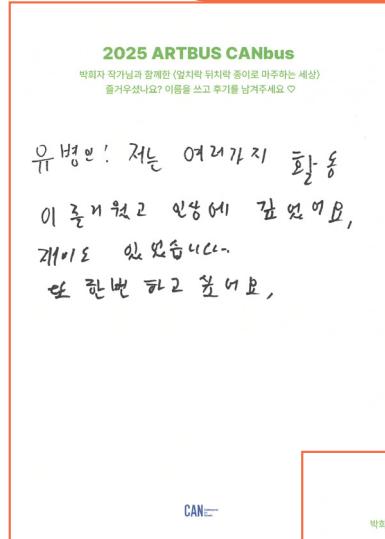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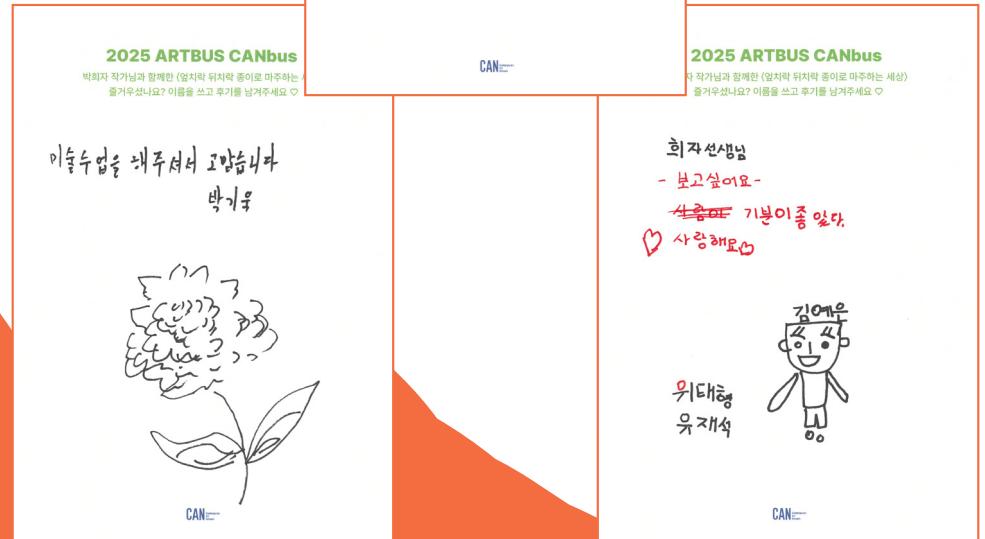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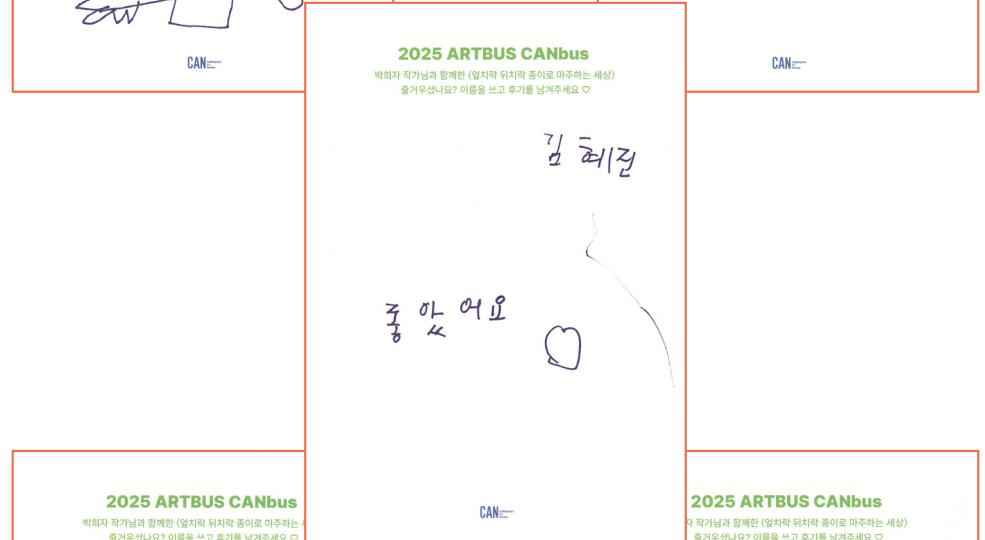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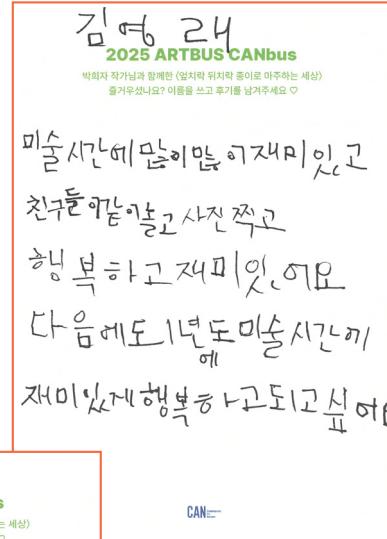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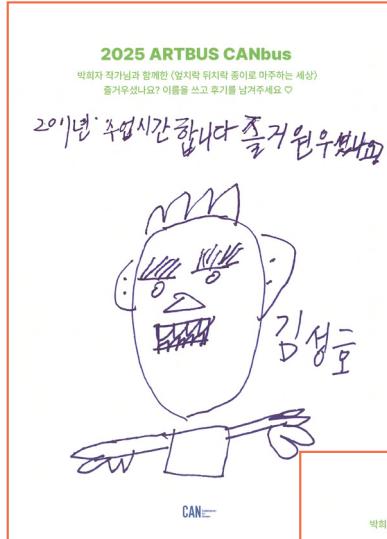


12



13





김소정

김소정 작가는 붉은 선, 족자, 병풍 같은 전통 양식을 빌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단면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길가에 방치된 킥보드처럼 어딘가 낯설고 불편한 풍경은 작가의 손끝을 거쳐 담백하게 표현됩니다. 작가는 일상의 풍경을 기록하여 사라지기 쉬운 순간들을 붙잡고, 우리의 삶 또한 특별한 풍경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수집된 시선, 나만의 풍경 만들기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나의 삶 기록하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야기를 담고 감상하는 전통 양식인 병풍과 족자를 활용해 ‘나’를 기록해 봅니다. 나의 얼굴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며 일상의 소중한 기억을 표현합니다. 얇고 섬세한 화선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손의 소근육을 단련하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1회차 2025.7.2.

<나의 풍경-자화상>

2회차 2025.7.9.

<나를 둘러싼 풍경-집과 가족>

3회차 2025.7.16.

<나를 구성하는 세계>

17

4회차 2025.7.23.

<나를 구성하는 세계-펼쳐진 병풍>

2025
RTBUS
Artbus
대미술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체험/창작
프로그램

소정 · 박희자

(주)창업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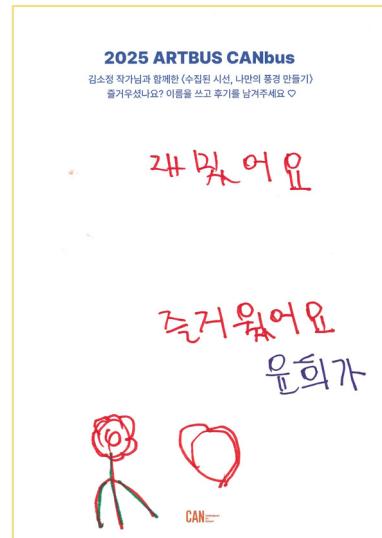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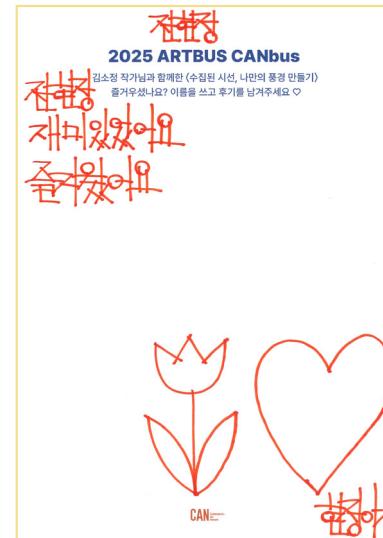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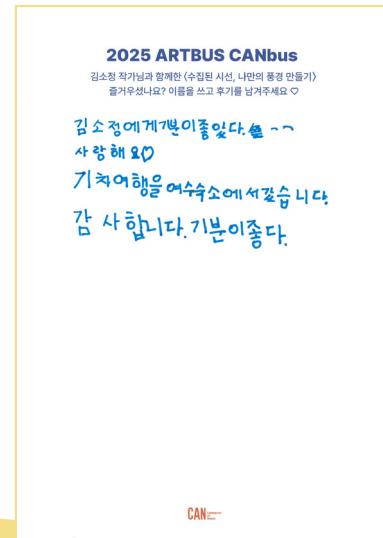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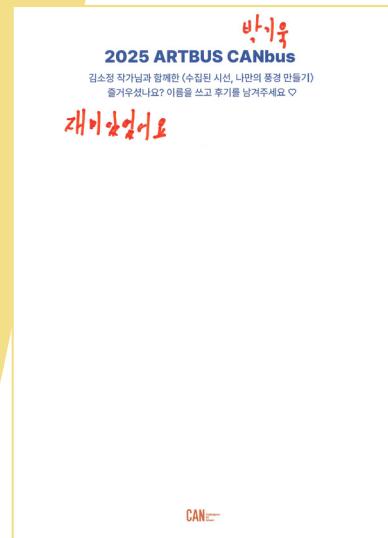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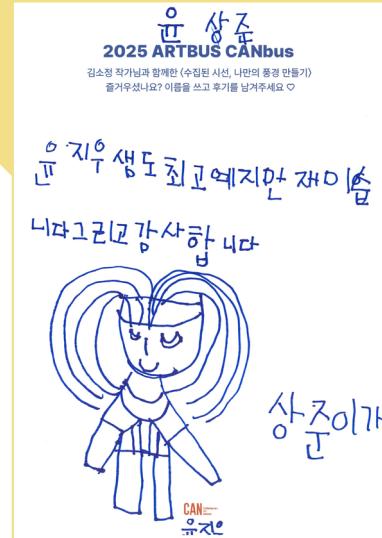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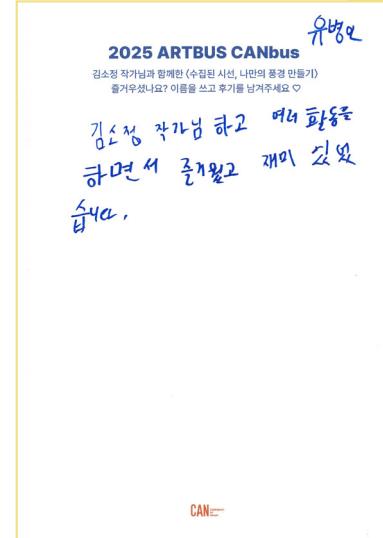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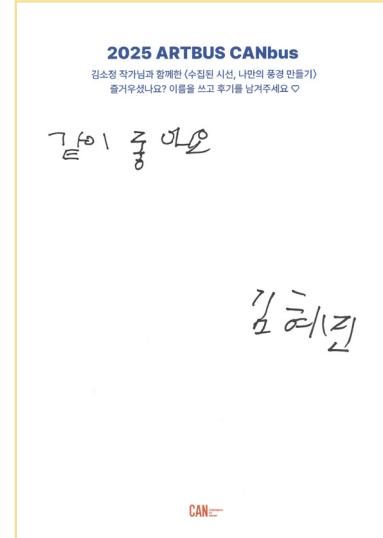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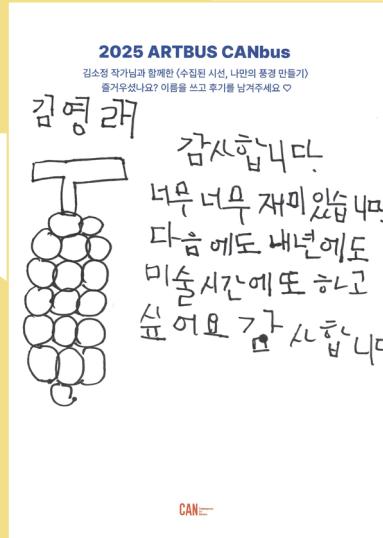


22



23





참여 후기 | 박희자 작가

저는 사진을 주 매체로 작업하는 시각 예술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환경에서 이미지를 통한 감각과 기록을 주제로 한 예술교육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캔파운데이션과 다운복지관에서 진행한 ARTBUS CANbus는 <엎치락 뒤치락 종이로 마주하는 세상>으로 삶에서 가장 익숙한 존재인 ‘나’와 매일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복지관을 사진 매체를 이용해 다시 보고, 새삼 새로운 취향을 찾고, 표현해 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알 수 없음’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연령, 감각적 특성, 생활의 맥락 등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접근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우와 달리 참여자들은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매우 정직하고 유연하게 수업에 반응해 주었습니다.

팝업카드로 ‘나의 취향’을 시각화하는 수업에서는 잡지 속 이미지를 넘기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좋아하는 것을 출발점 삼아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로 이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매개로 주변을 둘러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간단한 드로잉으로 표현했는데, 재현을 넘어 자신이 본 것으로부터 연상하고 이어가며 장면을 확장하는 사고의 흐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주변의 텍스처를 채집하고 재구성하는 꿀라주/회전조각 수업에서도, 각자가 고른 재료의 질감, 색감, 배치 방식은 스스로의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수업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세계를 잠시 엿보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 차시마다 참여자분들이 건네주던 따스한 말들은 매번 저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덕분에 예술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캔파운데이션과 다운복지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준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후기 | 김소정 작가

2025년 초, 처음 수업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작업을 바탕으로 수업을 만든다는 점이 신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 ARTBUS CANbus>의 수업을 기획하며 들었던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작업에서 어떤 부분을 살려 수업을 기획해야 할지, 혹은 그 대상이 자극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지, 과연 나의 작업을 드러내는 수업은 무엇일지, 또 작업과의 관련성을 떠나 지루하지 않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등입니다. 이 질문들은 수업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작업의 개별 소재보단, 제가 주목하였던 전통 양식을 빌려 학생들에게 병풍과 족자 등을 다시 소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구성하는 화면을 채워 나간 학생들의 작품 속에서 제 작업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운복지관의 학생들은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보다 직관적으로 그렸고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구성하는 화면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4회의 수업에선 한국 회화, 고전 회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보던 병풍과 족자를 학생들이 더 가까이서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언젠가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어딘가를 방문해 서 우연히 병풍을 보게 된다면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작품과 일상의 갭이 메워지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작업을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관람객이 가져가길 바랐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운복지관의 학생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여름 더위와 장마를 거친 이 수업을 통해 저의 작업 세계와 더불어 학생들의 시선을 엿보며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이끌어 주신 윤화영 선생님과 수업에서 수고해 주신 보조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MFA
2006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주요 개인전

- 2024 《포스터는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더 씨, 서울
- 2022 《Short talk on why some people find exciting》,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 2020 《뤼리리; RERERE》, BMW 포토스페이스, 부산
- 2019 《形 and FORM and FRAME》, 부천아트벙커 B39, 경기
- 2018 《다중노출》, 송은아트큐브, 서울

주요 그룹전

- 2024 《섬의 명령 Dis(land)order》, 아트스페이스 IAa, 제주
- 2023 《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아트랩 산양, 제주
- 2023 《PL.3, Museumuniquepiece》, 서울
- 2023 《발푸르기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22 《정착세계》, 북서울미술관, 서울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 2025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자율기획 <비가공채집: 기록의발견>
- 2024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자율기획 <The one is about you:
연결된 세상의 나를 확인하는 법>
- 2023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과천대면: 과천을 담다>
- 2023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자율기획 <계단을 오르는 몸:
일상공간 예술적으로 탐구하기>

수상

- 2019 제9회 KT&G SKOPF (한국사진가지원프로그램)
- 2017 Public Art 매거진 선정 New Hero
- 2014 제15회 사진비평상

작품 소장처

고은사진미술관, KT&G 상상마당,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캔 파운데이션

201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2014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 2023 《matters》, OCI미술관, 서울
- 2022 《Borderline》, 프로젝트 경성방직, 서울
- 2021 《지켜보는 사람》, 아트 스페이스 보안1, 서울
- 2020 《가는 응시와 단단한 선》, 오!재미동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 2023 《불편한 미술관: 우리는 그들에게》, 소다미술관, 화성
- 2022 《넥스트코드 2022》,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22 《None None》, 유영공간, 서울
- 2022 《합의형수록》, 해움미술관, 수원
- 2021 《Serials》, 레인보우큐브, 서울

수상

- 2022 2023 OCI YOUNG CREATIVES, OCI 미술관, 한국
- 2022 넥스트코드 2022 선정, 대전시립미술관, 한국

작품소장처

대전시립미술관, OCI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기관: 다운복지관 참여 후기

“나를 담은 예술, 나를 만나는 시간”

‘예술’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중한 도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한 명 한 명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품들은 모두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마음에서 피어난 작은 우주 같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삶을 담아낸 그 작품들은 모두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다운복지관 소개

2003년 7월,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연 다운복지관은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으로 장애인의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닌, ‘보통의 일상’이 되도록 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다운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미션으로 삼고 장애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운복지관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여는 곳이자 마음을 잇는 다정한 이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그들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상담, 직업훈련, 문화·예술 활동,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삶의 다양한 결을 담아내는 실천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은, 다운복지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과 ‘존재의 존엄’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인들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작지만 변화들이 이곳에서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복지관은 오늘도 예술을 통해 묻고, 듣고, 함께 느낍니다.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함께 걸어갑니다. 다운복지관은 언제나 가능성과 존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술과 일상 속에서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
ARTBUS
CANbus

발행일
2025. 10.

발행
(사) 캔 파운데이션

편집
(사) 캔 파운데이션

총괄
(사) 캔 파운데이션

총 기획
장문경 (캔 파운데이션 이사장)
김도연 (캔 파운데이션 실장)

기획 및 진행
윤화영 에듀케이터

참여작가
김소정, 박희자

진행보조
김예은, 윤지우

후원
(재) 청암문화재단

협조
다운복지관

담당 복지사
김민정 사회복지사, 한슬기 팀장

내용/구성
윤화영 에듀케이터

사진
오동환

디자인
파이카(이수향, 하지훈)



(재)청암문화재단

2025 ARTBUS CANbus

CAN
Contemporary
Art Network

(재)청암문화재단